

# 1

## 충남 마을연구 사례 및 향후 연구과제

# 충남지역 마을연구: 경험의 소개와 제안

김 필 동 (충남대 사회학과)

아래에서 소개하려는 내용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3년+2년)으로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에 조직되어 5년간(2004.9~2009.8) 활동한 ‘마을연구단’에서 수행한 충남지역 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것이다. 아래 내용의 많은 부분(‘한컴바탕체’로 표시된 부분)은 『충남지역 마을연구』(김필동 엮음, 2011)의 ‘서장’의 내용에서 따오거나 요약한 것이다. 여기에 새로 보충한 부분은 ‘돋움체’로 표시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 충남발전연구원이 새롭게 수행하려는 ‘마을연구’를 위해 약간의 제안을 하면서, 마을연구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1. 마을연구단의 조직과 활동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마을연구단(이하 ‘연구단’)은 2004년 9월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충남지역 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했다.<sup>1)</sup> 당시 우리가 충남지역 마을연구에 착수하게 된 데에는 충남(넓게는 충청) 지역의 마을연구가 영남 또는 호남 지역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런 사정은 현지조사연구나 역사적 연구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기왕 연구단을 꾸려 마을연구를 수행하는 김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역사와 현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마을연구를 수행할 계획을 세웠고, 연구대상도 충남지역 전체의 다양한 마을들을 포괄하기를 희망했다. 한편 이런 연구계획을 세우게 된 데에는 이에 앞서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수행한, 근대이행기 지역엘리트 연구(연구책임자 박찬승 국사학과 교수)의 경험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인 내포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마을 수준의 좀 더 미시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것이다.

원래 연구단에 허용된 연구기간은 3년이었다. 그러나 연구단은 이 사업(제1차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후속 사업에 대한 새로운 연구지원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과제가 선정됨으로써 충남지역 마을연구(제2차 사업)를 2년간 더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sup>2)</sup>

마을연구단의 제1차 사업은 매년 충남지역의 마을 3개씩을 선정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3권의 마을지와 15편의 연구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1) 사업명: “충남지역 마을공동체의 생애와 정체성” (2004-2007)

2) 사업명: “충남지역 마을의 정체성과 역동성 연구: 마을지 편찬과 마을자료의 수집 및 체계화” (2007-2009)

당시 공동연구원이 모두 15명이었는데, 연구원들은 매년 세 마을 중 한 개를 골라 그 마을을 대상으로 한 주제별 논문을 작성했고, 마을지는 공동연구원 중 6명의 전임연구원들이 중심이 되어 원고를 작성했다. 그 결과 3년간 모두 9권의 마을지와 45편의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마을지와 논문은 이 책의 참고문헌 목록과 마을연구단 연구원 발표논문 목록에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제1차 사업의 막바지에 후속(제2차) 사업을 계획하면서, 우리는 충남지역 마을연구를 계속해야 할 당위성과 사업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잡았다:

우선 기왕 시작한 충남지역 마을에 대한 연구의 폭을 좀 더 넓혀서 충남지역 마을연구를 ‘완결’ 짓고자 하였다. 여기서 ‘완결’이라 함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충남지역의 16개 시군 별로 1개씩의 연구대상마을을 빠짐없이 조사·연구함을 의미한다. 숫자를 좀 더 늘린다고 ‘완결’이 될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상징적 명분하에 충남지역 마을의 다양한 모습들을 좀 더 폭넓게 연구하고 싶었던 것이다.

둘째, 제1차 사업의 기본 취지와 연구방법을 계승하되, 연구 결과물에 변화를 주고자 했다. 즉, 새로 조사·연구하는 마을의 마을지는 계속 내되, 연구논문은 특정 마을 사례를 다루는 데 그치지보다는 제1차 사업과 제2차 사업의 연구대상이 된 여러 마을들을 특정 주제에 따라 상호 비교하고 나아가 이를 종합하는 형태의 작업으로 작성하자는 것이었다. 아울러 5년간의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수많은 원자료들을 정리하여 DB로 구축하고, 이를 다른 연구자들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작업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결국 제2차 사업은 제1차 사업을 전제로 하고, 이를 포괄하면서 발전시키는 형태로 계획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제2차 사업은 앞으로 충남지역 마을을 연구할(또한 다른 지역도 포함하여) 개인 및 집단연구자들의 연구를 자극하고 이들에게 우리가 수집한 소중한 1차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마을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소망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이 받아들여져, 마을연구단은 총 5년간의 연구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연구단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원들이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마을연구단에 참여한 공동연구원 구성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제2차 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총 14명의 공동연구원의 전공 배경은 사회학(4명), 역사학(4명), 지리학(2명), 민속학(2명), 인류학(1명) 및 컴퓨터공학(1명)에 걸쳐 있었다. 이 정도면 연구에 필요한 가장 이상적인 ‘학제적 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기할 것은 한·일 마을 비교를 위해 일본 연구자(사회학)가 참여하였고, 자료집 DB 구축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컴퓨터공학 연구자가 참여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단의 학제적 구성이 공동연구의 과정에서 상호 자극과 큰 도움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14명의 공동연구원 중 절반인 7명의 전임연구원(연구교수)들은 마을지 편찬과 자료 수집 및 DB 구축 작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밖에 마을연구단에는 많은 대학원생 및 학부생들이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여 연구를 도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진 구성은 제2차 사업(+2년)에서 마을연구자료 DB 구축 작업을 돕기 위

해 참여한 컴퓨터공학 전공의 공동연구원을 제외하면 모두 문과계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역사적 연구에 상당히 큰 비중이 두어져 있는 구성이었다. 이는 연구의 최초의 기획이 인문학, 특히 한국사 연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제2차 사업(2년)에서 다소 달라졌지만(사회과학 분야 공동연구자의 증가) 연구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한때 제2차 사업에서 연구책임자로서 본인은 지역계획이나 농촌개발을 전공한 공동연구원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기존의 연구의 성격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울 것 같아 포기하였다.

따라서 오늘 소개하는 마을연구단의 ‘충남지역 마을연구’는 그동안 충남발전연구원이 수행해온 ‘농촌지역(개발)연구’와는 성격이 많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히 대조적인 두 연구 집단의 과거(+현재)의 모습이야 말로 오늘 ‘충남지역 마을연구’를 화두로 대화하는 이유이자 출발점이 되고 있다.

## 2. 연구 대상 마을의 분포와 특징

연구단은 5년간 모두 13개 지역(시·군)의 14개 마을을 조사·연구했다. 제2차 사업에서는 매년 두 지역의 마을을 조사했는데, 한 곳(예산군 대흥면)에서는 인접한 두 마을(동서리와 상중리)을 함께 조사했다. 또한 이 지역은 마을지를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냈기 때문에 제1차 및 제2차 사업을 통해 펴낸 마을지는 모두 14권이 되었다.<sup>3)</sup>

원래 제2차 사업을 계획할 때는 충남지역 16개 지자체에 속한 마을 1개씩은 모두 포함시키고자 했지만, 과제 선정 과정에서 3년으로 신청했던 연구기간이 2년으로 축소되면서 3개 지역(천안시, 청양군, 서천군)은 빠지게 되었다. 3개 지역이 연구대상에서 빠진 것은 분명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선정된 13개 지역 마을들이 충남지역의 수많은 마을들의 성격을 가급적 골고루 대표할 수 있는 마을인가 하는 점이다. 다음 <표1>과 <표2>는 제1차 및 제2차 사업의 연구대상 마을의 특징을 요약하고, 생업·환경에 따른 유형구분을 시도해본 것이다.<sup>4)</sup> 이를 보면, 제2차 사업의 연구대상 마을이 제1차 사업의 연구대상 마을의 유형적 특징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차 사업에서는 농촌과 어촌을 포괄하면서, 종족마을이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제2차 사업에서는 산촌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sup>5)</sup> 그 결과 13개 지역의 연구대상 마을들은 충남지역 마을의 다양한 모습(특징)들을 충분히 대표할 만한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3) 이 마을지는 ‘충남지역 마을지 총서’라는 이름으로 제1권에서 제14권까지 출간되었다. 제1권에서 제9권까지는 대원사에서 나왔고, 제10권에서 제14권까지는 민속원에서 나왔다.

4) 오랜 기간에 걸쳐 성격 변화를 겪어온 마을의 유형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과거에 흔히 사용했던 반촌과 민촌의 구분, 종족마을과 각성마을의 구분 등도 이제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시도한 유형구분은 지리적 생업 환경에 따른 것으로, 마을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지표 정도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5) 다만, 이들은 모두 도시 근교의 산촌으로, 최근의 모습은 다른 산촌보다 빨리 변하고 있다.

<표 1> 제1차 사업(2004.9~2007.8) 연구대상 마을의 유형과 특징

번호	대상 마을	생업환경 유형	마을의 특징
1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내륙평야마을	진주강씨 종족마을(민촌형), 금강변의 옛 포구 마을, 간척과 제방, 시설원에 부촌
2	연기군 동면 송룡리	내륙평야마을	결성장씨 종족마을, 지주경영 → 각성마을
3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해안도서마을	어업과 양식업을 겸하는 어촌
4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내륙평야마을	예안이씨 종족마을, 민속마을
5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해안도서마을	섬마을, 바지락양식, 관광(해수욕), 제의(동제)
6	당진군 합덕읍 합덕리	내륙평야마을	천주교 교우촌, 성당의 지주경영(과거)
7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산간마을	해평길씨·밀양박씨 종족마을, 민속자료 풍부
8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내륙평야마을	파평윤씨 종족마을, 재실마을, 문화경관
9	홍성군 광천읍 웅암리	해안도서마을	옛 포구, 토굴새우젓 저장·판매, 교통 편리



- ①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 ② 연기군 동면 송룡리
- ③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 ④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 ⑤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 ⑥ 당진군 합덕읍 합덕리
- ⑦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 ⑧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 ⑨ 홍성군 광천읍 웅암리
- ⑩ 서산시 고북면 초록리
- ⑪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 ⑫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 ⑬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그림> 충남지역 마을조사연구 대상마을

<표 2> 제2차 사업(2007.8~2009.7)의 연구대상 마을의 유형과 특징

번호	대상 마을	생업환경 유형	마을의 특징
10	서산시 고북면 초록리	산간마을	장인·재인마을(중고제, 옹기, 밴드)
11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상중리	내륙평야마을	옛 대흥군 읍치마을, 예당저수지, 임존성, 전통문화와 개발의 조화 추구
12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산간마을	산림문화, 송계, 산악송배와 신종교
13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산간마을	생태문화, 다랑이논, 밤재배, 별장지

그러나 연구대상 마을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마을 선정 시 다음과 같은 고민이 있었음을 말해 두고 싶다. 농업환경이 급변하고 농촌인구가 크게 줄어들면서, 많은 마을들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일부 마을들은 이미 소멸의 길에 들어서고 있으며, 주변 환경의 급변으로 아예 개발대상지로 바뀐 곳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런 마을 중에는 오랜 기간 생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주요 인물(집안)이 거주했으며, 한 때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마을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연구하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와 너무나 달라진, 쇠락해 가는 마을 두어 곳을 포함시키려던 애초의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큰 변화를 겪은 마을들은 마을연구의 방법론을 온전하게 적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과거의 모습을 알려줄 마을의 물리적 환경(경관)이 크게 달라지고, 마을의 역사와 과거의 경험을 증언해 줄 사람과 집안들이 거의 사라졌으며, 그 결과 이렇다 할 마을문서(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마을연구 과정에서 연구자가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주민들에 대한 친근감이나 마을에 대한 애정을 갖기가 어렵다. 이런 태도는 한편으로는 연구자로서 경계해야 할 점이지만, 이러한 인간적 공감의 바탕이 없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만남과 소통 작업을 요하는 마을연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마을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충남지역 마을연구의 전체상 속에서는 이런 마을들의 존재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3. 마을연구단의 ‘마을연구’ 의 성격

5년간에 걸친 마을연구단의 연구활동에서 견지한 ‘마을연구’ 의 성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모든 연구원들이 이런 성격의 마을연구를 항상 의식하고, 지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연구책임자로서는 되도록 이런 성격의 마을연구가 될 수 있도록 유의했다)

#### 마을연구의 목적

제1차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설정한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마을의 형성에서부터 역사적 전개 과정, 그리고 최근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마을의 전 생애사를 살펴보면서, 충남지역 마을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에 왔는가를 살피고자 함.

제1차 사업은 “충남지역 마을공동체의 생애와 정체성” 이란 제목을 달고 있었는데, 그런 제목에 걸맞게 마을의 오랜 역사를 통해 지속되는 특징을 ‘정체성’ 의 개념을 통해 포착하려고 한 것이다.

## 마을연구의 정의

‘마을’이란? :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거주/생활 공간이자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사회관계). 특히 기본적으로 1차산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곳. 촌락(村落). 농촌, 어촌, 기타 이행과정의 촌락을 포함.

‘마을연구’란? : (이러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을 포괄적, 총체적, 역사적 시각에서 연구하는 것. ‘마을연구’란 그 자체 특징적인 ‘연구방법’을 의미.

## 마을연구의 특징

### 1) 포괄성 (포괄적/복합적 탐구)

- (마을) 생활의 모든 부면을 포괄적으로 탐구
- 지리, 역사,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일상생활, 민속 등을 포괄

### 2) 총체성/전체성 (전체론적 접근)

- 전체로서의 마을을 다룸. 마을공동체 (community)
- 그러나 마을을 고립시키지 않고, 보다 넓은 지역사회(面,郡,市,道) 속에 위치시키고,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일부로 다룸

### 3) 역사성/연속성 (긴 시간축 위의 고찰)

- 마을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종단적으로 파악
- 그 과정에서 형성된 마을의 정체성(identity)에 유의

## 마을의 문명사적 함의

1. 마을은 한반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20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거주해 온 생활공간이다.

2. 또한 마을은 민속·의례·신앙 등 전통문화의 창출공간이자, 조선시대 선비들이 정신문화를 산출해온 공간이며, 당시에는 양반 문화와 정치력의 센터였다.

따라서, 마을의 해체·소멸은 한국문화의 뿌리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 전통문화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 한편, 마을은 대부분의 현대 도시민의 성장 배경이자 삶의 뿌리이고, 정신적 고향이다.. 나아가 마을은 도시생활과 현대문명의 한계를 느낄 때 돌아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 귀향, 전원주택, 마을계획 (도시계획이 아니라)

⇒ 따라서 마을은 어른들에게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과 후손들에게도 소중한 곳이다.

## 마을연구의 중요성

### 1. 오늘날 마을은 해체·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

- 1966년 한국의 농가인구 1,540만명 (인구 절반 상회)  
2004년 현재 약 340만명. 전체인구의 7%에 불과 (2010년 약 300만)
- 고령화 심화. 60세 이상 인구가 절반(심지어 2/3)이 넘는 마을 적지 않음. 반면, 마을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이제 보기가 매우 어려워짐

### 2. 마을 조사와 마을연구의 필요성, 시급성

그런 마을이 사라져 가고, 이제는 학문적 조명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  
(농민인문학·농촌사회과학의 위축)

## 마을조사의 방법과 절차

\*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발전시켜 온 다양한 연구방법론과 기법을 포괄적으로 적용. (연구단 전체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

#### 1) 마을 경관 관찰 지도 작성, 사진 촬영

- 지형, 토지이용, 생업, 가옥배치, 생활시설, 유적, 묘소, 기타 건조물 등
- 과거 및 현재의 항공사진, 지도 (시기별) 대조

#### 2) 문헌자료 수집

- 족보, 문중기록, 마을운영자료, 개인 기록
- 마을, 면, 군(시) 수준의 여러 통계자료
- 주민등록표, (제적부) 열람.
- 면사무소 및 관련 관청 소장의 각종 기초자료
- 개인 소장의 옛 사진
- 과거의 신문 자료
- 기타 마을(인근 지역 포함)에 관한 기존 연구물, 보고서

#### 3) 면접 조사 (가장 중요한 부분)

- 마을 주민 다수, 특히 노인층에 대한 개별 또는 집단 면접
- 마을의 역사(사건), 과거 및 현재의 생활/관습(민속)의 여러 모습, 개인생애사 청취
- 경제 활동, 조직 활동, 문화 활동, 마을의 현안, 외부와의 관계에 대한 폭넓은 청취
- 면접 결과는 현장 기록, 녹음. 돌아와 이를 토대로 녹취록 작성. 녹음을 하지 못한 경우는 조사노트를 재구성하여 기초자료로.

#### 4) 참여 관찰

- 마을의 각종 행사 참관: 공식행사, 혼상례, 비공식 모임 등.
- 마을의 일상적 활동(생산활동 포함) 주기적으로 관찰

#### 5) 사진 촬영: 이상의 모든 과정에서 사진 기록 남김. 일부 비디오 촬영

이상의 연구 방법(절차)들은 공동연구원이 연구보조원(학생)의 도움을 받아 수행하고, 수집된 자료들은 개인별로 정리해서, 연구단에 공동 보관, 공동 이용한다. 나아가 제2차 사업에서는 1차 및 2차 사업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디지털화 해서 ‘마을연구단 DB’를 구축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 4. 연구 성과와 마을연구의 발전 방향

마을연구단은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전공을 갖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하면서 많은 학문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동안 14권의 마을지가 출간되었고, 총 76편의 연구논문이 생산되었으며, 연구단 활동을 통해 수집된 각종 자료들을 정리해서 DB를 구축하고, 일반 연구자들도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원래 마을연구단은 자체 서버를 통해 DB를 구축하고, 검색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마을연구단의 해단 이후 DB 소스 일체를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에 기증하여 일반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sup>6)</sup> 이밖에 2011년에는 5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마을간의 비교와 종합을 지향하는 논문을 수록하고, 연구사업을 총괄 정리하는 『충남지역 마을연구』(민속원)를 출간하였다. 이 중에서 마을자료DB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 ‘마을자료DB’는 마을조사과정에서 연구원들이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문헌자료, 구술자료, 사진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모든 자료는 디지털화된 원자료(파일)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검색 기능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헌자료 : 마을운영기록(규약·장부 등), 문중운영기록, 족보, 문집, 일기, 기타 자료적 가치가 있는 모든 기록물들 (스캔파일 또는 디지털사진파일)

구술자료 : 마을사람들 면담록, 증언록, 녹취록. (일부 음성파일)

사진자료 : 연구자들이 마을에서 찍은 각종 사진들(경관, 건조물, 활동 등), 개인 또는 가정에서 보관해온 옛날 사진(스캔파일 또는 디지털사진파일)

지도자료 : 해당 마을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도도판, 항공사진, 고지도 등

6) 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sda.or.kr/>

\* 특정 마을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다른 마을, 면, 시·군 수준) 일부 포함

이상 DB로 구축한 자료 중 일부는 마을연구단 연구원들이 마을지 편찬과 논문 집필 과정에서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활용하지 않은 자료가 훨씬 더 많다. 따라서 앞으로 ‘마을자료DB’는 마을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원이자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당 마을 현지에서조차 급속하게 사라져가는 역사적 자료와 주민들의 삶의 흔적들을 보존하는 의미도 적지 않다.

이제 다른 연구자들, 특히 후속세대 연구자들은 ‘마을자료DB’를 바탕으로, 또 필요하다면 약간의 보충조사를 통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마을연구를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마을자료DB’는 단지 해당 마을의 연구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다른 지역 마을을 연구할 때, 조사할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안내하고, 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역할도 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을자료DB’는 다른 마을(지역) 조사를 수행한 연구자들이 조사 결과를 비교연구의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이다. 앞으로 충남지역은 물론, 충청권을 넘어선 다른 지역의 마을연구 또한 더욱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국제적인 마을 비교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한다.

## 5. 마을연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 약간의 제언

마을연구의 또 하나는 중요한 발전 방향은 이상의, 인문·사회과학적 관심에 기초한 ‘학술적 연구’를 바탕으로(또한 이것과 병행해서) 현재 각 마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방향설정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기초적인 학술적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결과가 현재의 당면 과제(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있어 왔고, 종합적인 학술적 연구를 수행해온 마을연구단의 연구 또한 후자에는 결과적으로 거리를 두어온 셈이다. 반면 현안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실천적 연구, 즉 ‘정책연구’의 경우에는 기초적인 학술적 연구의 성과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 왔다. 이러한 사정은 마을연구단의 연구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해온 마을연구(마을 관련 연구)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sup>7)</sup>

### 충남발전연구원의 ‘마을 관련 연구’의 성격

마을연구단의 연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개했기 때문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도 그동안 수행해

---

7) 아래의 논의는 제대로 된 분석과 비교라고 할 수 없는 매우 초보적이고 인상적인 수준의 것이다. 오늘 워크숍의 성격상 논제를 던진다는 의미에서 미진함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온 연구들을 개관해 보기로 하자. 편의상 총발연의 연구보고서들을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약식으로 살펴보기로 한다(보고서의 내용까지 자세히 검토한 것은 아님).

편의상 연구보고서의 제목에 ‘마을’이 포함된 보고서들을 검색해 보면, 모두 86건의 보고서가 나타나는데, 이를 보고서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략과제(10건), 현안과제(37건), 수탁과제(22건), 기본과제(6건), 기본과제(전략)(9건), 센터과제(2건)

이상 86건의 연구과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제가 현안과제와 수탁과제인데, 연구의 성격상 제한된 시간에 정책적 선택지 또는 방안을 제안하는 성격의 과제이므로 연구방법을 포함한 연구의 자율성에 제한이 많은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전략과제와 기본과제(전략)은 충남도 및 시군의 비교적 장기적인 정책개발에 대응하는 연구로 연구기간도 비교적 긴 편(대체로 반년 이상)이므로 연구방법의 선택과 결론 도출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있는 연구로 보인다.

최근 기본과제가 설정이 되어 연구원 개인의 학술적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점이 주목된다. 이 과제를 통해 연구원에서도 마을연구가 본격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과제)의 유형과는 별도로, 마을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현재의 연구자 대부분이 농업과학적 배경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 연구방법이 상당히 형식화·표준화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 대화와 협력: 안목 넓히기, 수단(방법) 보충하기

그런데 총발연에서 수행해온 연구들은 대부분 정책적 연구이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라는 점에서 ‘실천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실천적 연구’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당국의 주문에 의해 연구방향이 제약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연구방법도 제한하는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본 것처럼 마을연구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 하나의 연구방법이다. 그것은 마을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이고, 마을 주민의 삶을 전체로서,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마을주민의 입장과 생각을 존중하는(그들을 주체로 간주하는) 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마을주민들과의 인터뷰와 그들의 생활/행동에 대한 관찰(나아가 참여관찰)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그만큼 시간과 수고를 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관견(管見)이지만, 총발연에서 수행해온 ‘마을 관련 연구’의 많은 부분은 마을주민을 객체화한 연구, 마을주민보다 마을의 경관(공간)과 시설·구조물에 초점을 두는 연구 경향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연구방법도 형식화·표준화·계량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연구 경향과 관행이 실천적 연구로서 장점을 갖는 점도 분명히 있다. 그러

나 총발연의 연구자들이 ‘방법으로서의 마을연구’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마을 속으로, 마을 주민의 삶의 다양한 측면과 생각 속으로 좀 더 들어가는 동시에, 마을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변수들에 주목한다면, 기존의 연구방법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연구의 성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초적이고 학술적인 마을연구를 수행해온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실천적 연구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농촌)마을의 생존·생활 조건과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익숙한 농업·농촌연구자들의 현실감과 분석역량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결국 양자는 상호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히 안목을 넓히고, 수단(방법)을 보충함으로써, 더욱 바람직한 마을연구, 농촌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더욱 기대를 걸고 싶은 연구자들은 관심이 방만한 인문·사회과학자보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농업·농촌연구에 매진하는 총발연의 연구자들이다. 이분들이 ‘마을연구’의 방법론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 방법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총발연의 연구 여건과 문화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